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탁 과제	지역경관 향상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심경미
	건축사 역량강화 및 시장진출 활성화 기반 마련 연구	김은희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심경미
	법질서 실천운동 통합모형 개발	유광흠
	중앙정부 공공건축물 수급관리 정책방향 연구	염철호
	경상북도(경주시, 안동시) 한옥 전수조사 용역	이강민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 가능지역 수요조사 연구	여혜진
	보행자우선도로 디자인(기획) 및 기본조사 용역	김승남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김상호

수탁과제

① 지역경관 향상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국토교통부는 통합적인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지자체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시공지원이 아닌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7년째를 맞아 그간 사업운영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온 시범사업 운영방식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업무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자체의 디자인 품질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총괄계획가를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이 2015년 새롭게 시행되면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평가체계·업무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역으로 강진·고양·논산·경기 광주·대구 남구·상주 6개 지역,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지역으로 대구 남구·서대문·세종특별자치시·웅진·익산·임실·평택·평창 8개 지역이 2015년 새롭게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의 관리지침 정비 및 모니터링 실시,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체계 마련,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기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확대 개편을 통해 민간전문가 지원사업과 경관관련 내용을 포함한 경관포털 사이트 구축·운영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범사업 관리체계 정비와 지원사업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화 및 활성화, 지자체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지역의 통합적 경관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건축, 도시, 국토공간의 질과 품격에 대한 가치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미

2 건축사 역량강화 및 시장진출 활성화 기반 마련 연구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으로써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건축사 발굴·육성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그러나 본 법의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기획·관리 연구' 용역(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2013대한민국 신진건축사상 기획 및 관리 운영방안 연구(대한건축사협회, 2013)',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정책 기획·관리 연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등의 용역을 통해 관련 정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의 지속 시행을 위한 후속 과제로서,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2013년과 2014년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신진건축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규정하고, 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발주기관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진건축사의 실질적인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비중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예정인 4건의 설계공모사업 기획 및 공고, 심사 및 선정, 설계공모 입선건축사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 2014년 '제2회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 중 4명을 선정하여 해당 사무소에 대학생 인턴 고용을 지원하는 신진건축사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신진건축사의 시장 진출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MOU 체결을 기획·준비하고 있으며, 건축사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미나를 실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와 그간의 정책사업 성과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건축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은희

3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지역 건축자산의 관광자원화, 창의적인 재활용을 통해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증진시킨 우수사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건축자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었다. 유네스코 현장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는 생활문화유산까지 보존의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로, 국토교통부는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2014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 제4조에서는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여건 및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천과제와 추진전략 등을 담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건축자산 관련 현황조사 및 국내 여건 분석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목표별 실천과제 및 추진전략 도출 ▲실행방안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그밖에 공청회 개최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제반업무 이행 등이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실천계획이자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게 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최상위 계획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지역 건축자산 보존과 창조적 활용,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

심경미

4 법질서 실천운동 통합모형 개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가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하며 '국가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중범죄의 확산을 막고 범죄예방을 포함한 포괄적 법질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법질서를 직접 체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시민의식 고취와 환경조성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현재 법무부는 기존의 캠페인성 준법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중앙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범죄에 따른 대응책으로 범죄예방 관련 시범사업(CPTED)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범죄예방사업은 초기 단계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사업들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지만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법률이 부재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 추진 기반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사업 매뉴얼 작성을 통해 법질서 실천운동 발전 방향 및 법무부 등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합 모형 개발과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궁극적으로 범죄 감소와 안전한 지역 만들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광흠

5 중앙정부 공공건축물 수급관리 정책방향 연구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08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과 이후의 제1차·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 향상을 위한 법령과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설계공모가 의무화되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된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막대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설 복합화, 사업 성과평가 강화,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등의 정책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예산 유형에 따른 개별적 수급관리체제로 국가 공공건축물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2013년 현재 전체 공공건축물 중 2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가 전체의 31.5%를 차지하며 2020년에는 44%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기존 공공건축물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공공건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공건축물의 신규 조성, 보전 및 리모델링, 통합화, 유지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및 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국가 공공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공공건축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 공공건축물 조성 및 관리 체계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총괄 관리체계로서 국가 공공건축 수급관리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 공공건축 수급관리 기본계획' 도입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기본계획의 도입·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도출하며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염철호

6 **경상북도(경주시, 안동시)**
한옥 전수조사 용역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5.6.4.)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법률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건축자산 기초조사(제6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제7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조사 매뉴얼과 정보의 표준체계 부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즉 제도적 기반은 갖춰진 반면, 실행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하여 법률시행 초기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옥자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한옥자산DB를 구축하고 DB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시행 초기에 지자체가 당면하게 될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경상북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한옥자산 DB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도에는 문화재 및 한옥자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경주시, 안동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에 분포하는 목조건축물 약 4만 2,000동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및 로드뷰 판독을 통해 한옥일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추출하고 구조 및 외관 등 14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한옥자산DB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옥자산의 분포 특성 및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등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 한옥 진흥정책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민

7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 가능지역 수요조사 연구

2014년 10월 「건축법」 제77조의 4~13에 건축협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민 간 협정을 맺어 자유롭게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2015년도 건축협정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 데 비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가속으로 주택 수요와 주민의 정주욕이 변화하면서 소규모 건축물 정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축협정에 의한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주거 재생사업의 기반 조성 효과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건축협정 법정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제도를 잘못 이해해 비법정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행정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과 건축사들이 자율적으로 건축협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초기에 검토된 법정지역 이외의 건축협정 수요를 파악하고, 건축협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법정지역을 확대하는 등 「건축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건축행위 여건이 불량하지만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건축협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건축 리뉴얼의 확산을 통한 건축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혜진

8 보행자우선도로 디자인(기획) 및 기본조사 영역

2013년 서울시내 도로 연장 8,198km 중 보도가 설치된 구간은 34.1%에 불과하며, 폭 12m 미만의 '소로'가 전체 도로의 77.5%(6,354km)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생활권 내 보행공간의 대부분이 좁고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 노상주차와 가로변 상업 활동이 혼재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 매우 제한적이다. 더 큰 문제는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73%가 이러한 소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배제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교통정온화시설이나 속도저감 시설을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의 일환으로,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폭 10m 내외의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2곳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8곳이 완공되었으며, 2015년에는 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2015년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현실 여건에 적합한 포장기법과 패턴 설계 대안, 이에 따르는 실무적 지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지 13곳을 현장조사해 각 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파악했으며, 자치구별 정책 담당자와 주민 협의체, 도막형 포장 시공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도로 패턴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운전자 측면에서는 운행속도 저감과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보행자 측면에서는 도로 전폭을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남

9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현대의 도시·건축 산업은 기술적 역량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담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 운영을 통해 자국의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건축 분야의 기록 자료의 축적·관리, 국민의 건축문화 의식 함양 및 도시·건축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건축박물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09년 행정복합도시 개발계획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문화기반시설로 계획되었고, 2011년 5개 박물관을 집적하는 국립박물관 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2015년 2월 도시건축박물관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또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 중)에서도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이 도시·건축 관련 교육, 전시, 홍보, 연구, 수집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 전시기획, 유물확보 및 활용, 교육프로그램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도시·건축 분야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건립 준비를 원활히 하고자 한다. 또한 박물관 단지 내 타 시설들(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박물관, 디자인미술관, 어린이박물관 등)과의 차별화 및 연계를 위한 콘텐츠 및 건축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단지의 통합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도시건축박물관이 유물 중심의 기존 박물관과는 달리 현재와 미래의 건축도시 유산들을 기록·축적해 가는 성장하는 박물관으로서, 한국의 도시건축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호

2015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토론회 ‘건축, 시대공감’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5년 12월 4일(금)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15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 시대공감’이라는 주제 아래 건축학도의 진로, 건축업계의 고민과 건축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고민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대학교육과 취업’, ‘건축설계 산업의 현재’, ‘건축계가 나아갈 방향’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김광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가 전체 좌장을 맡았다.

1부 ‘대학교육과 취업’에서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이재명 학생(국민대학교 건축학부)이 건축학과 졸업예정자와 건축설계 취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취업

준비 현황과 과정, 애로사항에 대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이어 박인석 교수(명지대학교 건축학부)가 명지대 건축학부 사례를 통해 현재 대학의 건축설계 교육의 현황과 소단위개발 수요 증가 등 건축설계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이아영 부사장(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과 2014년 신진건축사 대상을 받은 김현진 건축사(SPLK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여 ‘건축설계 산업의 현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아영 부사장은 대형 설계사무소의 설계시장 상황과 향후 출구전략, 김현진 건축사는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신진건축사의 활동여건에 대해 발제하는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건축계가 나아갈 방향’을 큰 주제로 3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억 원대 집짓기 워너비 하우스』의 저자이기도 한 이세정 편집장(월간지 『전원 속의 내 집』)은 많은 건축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느낀 소규모 주택 건축가들의 현실, 건축가와 건축주의 접점 찾기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현아 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대두되고 아파트의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건축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제공하였다.

건축학계, 업계, 관련 학·협회 등 다양한 건축 관련 전문가와 일반 시민 18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우리 시대의 건축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2015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한옥, 살아보기’
개최



‘2015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이 지난 10월 23일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렸다. ‘실속 있는 한옥’이라는 큰 주제 아래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옥, 살아보기’를 주제로, 한옥을 구매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정현 대표(WOOZOO)는 ‘한옥을 빌려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세어하우스를 소개하고, 그 시작이 된 한옥세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느낀 한옥의 장·단점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이현진 한옥아파트 건축주가 ‘아파트, 한옥을 향해 가다’라는 주제로 실내마감이 되지 않은 마이너스 옵션 상태의 아파트를 한옥 공간으로 창출해 낸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기획부터 설계-시공-완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며 한옥아파트 건축을 위한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방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한옥체험업 동향’을 주제로 한옥체험 숙박시설의 이용 및 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한옥체험업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한옥체험업 시설 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호열 교수(부산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으며 고익준 매니저(코자자),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조영귀 소장(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많은 사람이 한옥생활을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5
auri
국가한옥센터
제3차
한옥포럼
‘한옥, 지어보기’
개최**

‘2015 auri 국가한옥센터 제3차 한옥포럼’이 지난 12월 18일(금)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 서 개최되었다.

2015년 한옥포럼은 ‘실속 있는 한옥’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옥, 함께쓰기’, ‘한옥, 살아보기’, ‘한옥, 지어보기’의 3차례에 걸쳐, 현대사회 속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한옥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옥, 지어보기’라는 주제로 한옥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층의 요구에 대응하여 지어진 다양한 한옥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옥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로는 오미숙 대표(애플스타일)가 ‘편리함과 경제성을 고려한 한옥 고쳐짓기’라는

주제로 교외에 위치한 노후화된 한옥을 거주자의 요구에 맞춰 저렴하고 편리하게 리모델링하였던 사례와 과정을 소개하며, 이러한 한옥 리모델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는 이윤섭 연구교수(명지대학교)가 ‘한옥, 전통방식이 해답인가요?’라는 주제로, 한옥의 성능개선과 건축비 절감을 위해 한옥 R&D 사업에서 시도했던 신기술·신공법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이 ‘한옥건축기준의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 주제발표를 통해, 한옥의 형태가 변모하고 다양화하는 현 시점에서 한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옥건축기준’의 제정 배경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배병선 소장(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을 좌장으로 김영수 연구교수(서울시립대학교), 김용수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정태도 이사장(참우리협동조합), 최명철 소장(단우건축사사무소)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옥의 발전과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한옥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포럼은 현대사회에서 한옥의 발전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양립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건축사의 역할’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건축사의 역할’ 세미나를 2015년 10월 28일(수)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협정제도 관련 사례를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제도 운영의 제일선에 있는 건축사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진행되었다.

초청기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는 여혜진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협정제도와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어졌다. 여혜진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관련 법 조문을 설명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건축기준 특례 항목과 설계 적용 시의 검토사항,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2015 건축협정 시범사업 추진사례’를 주제로 이상섭 건축사(주강림씨엠건축사사무소)가 ‘영주시 건축협정 시범사업’, 오신욱 건축사(라움건축사사무소)가 ‘부산시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건축사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협정 시범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을 발표하며 그 안에서 건축사의 역할과 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개선점 등을 설명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왕정환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 전 건축협정 TF 위원장)를 좌장으로 조은혜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준승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서수정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인의 발표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건축협정제도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사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자들이 제도의 개선점과 이해도 제고 방안,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5 제4, 5차 지식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 제4차 지식강연회를 11월 17일(화), 제5차 지식강연회를 12월 15일(화) 연구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015년 지식강연회는 소내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연구방법론의 이해'를 비롯하여 '정부 3.0교육', '연구윤리교육 및 청렴교육' 등의 큰 주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4차 지식강연회는 '질적 연구와 방법론의 이해', 제5차 지식강연회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소내 연구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제4차 강연회에는 박휴용 교수(전북대학교 교육학과)가 강연자로 참여해주었으며 질적 연구의 실행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의 종류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먼저 질적 연구의 토대가 되는 이론, 양적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질적 연구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참여관찰', '인터뷰법', '시각자료 분석법' 등 질적 연구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수행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연구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제5차 강연회는 방일호 대표(주)시드아키텍)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을 통해 최근 건설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제기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의 필요성, 도입 현황, BIM의 기본적인 개념이 설명되었다. 또한 기존 2D 기반 설계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BIM의 도입, 특히 BIM이 건축설계 분야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통합된 업무 프로세스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건축설계 분야의 신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지향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 제4차, 제5차 지식강연회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 설계 시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건축설계 분야의 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었다.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한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가 지난 10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준공', '계획', '사진' 3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준공 부문 3개,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32개 등 모두 53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준공 부문에서는 한옥을 공공건축물로 활용하여 한옥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서울시 종로구의 '청운문학도서관'이 올해의 한옥대상을 수상하였다.

계획 부문에서는 한옥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 제안을 한 '도시 한옥의 풍경을 담다'(예제곤)가, 사진 부문에서는 남산 한옥마을의 늦가을 풍경을 흑백 프레임으로 담아낸 '고즈넉함 속으로'(이성우)가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600여 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한옥에 대한 큰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이라는 올해의 주제에 걸맞게 다양한 용도의 수준 높은 한옥 건축물과 계획안이 제시되어 현대 속에서 한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종로 피맛길 3D 실측 영상 및 VR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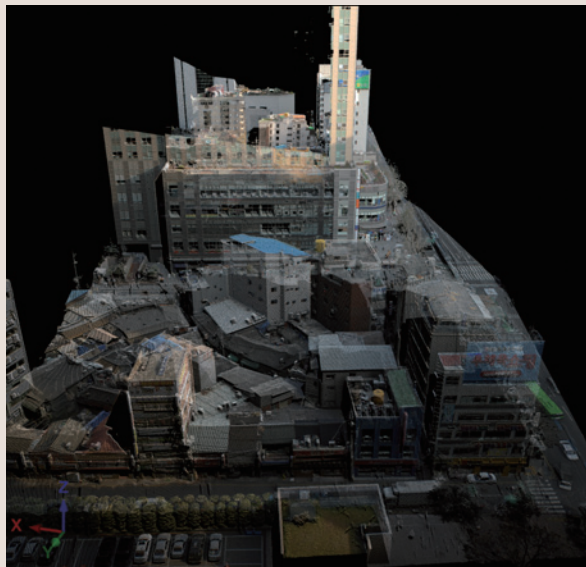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 10월부터 종로 피맛길의 개발 전 모습을 기록한 '종로 피맛길 3D 실측 영상 및 VR 서비스'를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피맛길은 종로1가에서 종로6가로 이어지는 이면도로에 형성된 600년 역사의 골목으로, 1990년대 이후 그 독특한 정취와 역사적 가치가 부각되며 널리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서비스되는 종로1가 청진동 구간은 서민적인 식당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으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부가 철거된 바 있다. 시민들의 반발로 뒤늦게 특화거리로 조성되었으나 본래 가지고 있던 예스러운 안타깝게도 사라진 상황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제공하는 피맛길 영상 서비스는 이러한 피맛길의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08년 도심재개발로 철거되기 전 피맛길의 모습을 디지털로 기록·보존하여 전달한다.

영상 서비스는 교보문고 뒷길에서 옛 한일관 건물까지(현재 D타워에서 그랑서울까지) 약 300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3D로 정밀 스캔한 데이터를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VR을 통해 개발 전 피맛길 골목과 점포 내부 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피맛길 사람들의 일상과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듣는 체험 또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대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국가 문화자산인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기록·보존하고 그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피맛길 기록 영상과 서비스 제공은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의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공청회'가 지난 11월 18일(수)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기본계획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계획이자, 향후 5년의 정책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중·단기 집행방안을 담은 종합적 실천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게 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최상위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심경미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건축자산의 여건변화와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목표별 실천과제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계획안으로는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2대 목표(▲건축자산의 가치 발견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와 8개 실천과제(▲건축자산 총조사 ▲건축자산 기초연구 ▲국민 공감사업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지원 및 활용 다각화 ▲한옥 조성 확대 ▲기술개발·사업 육성 ▲건축자산 활용 선도사업)가 제시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박경립 교수(강원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권영상 교수(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용미 소장(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우동선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조현중 과장(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김정희 과장, 심경미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관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실무자,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참석자 등과 함께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된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2015 하반기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정기교육을 지난 11월 10일(화)과 12일(목) 양일간 서울 건설회관(10일)과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12일)에서 실시하였다.

차주영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건축 우수 사례 소개와 함께 품격 높은 공공건축 구현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 설계발주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먼저 올해 '제9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사례에 대하여 최도수 도시재생정책관(인천광역시 도시관리국)의 발표가 있었다. 최도수 정책관은 발표를 통해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의 당초 사업계획과 조성 과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요인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의 실행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김은희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교육이 이어졌다. 김은희 부연구위원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목적과 절차 등 '사전검토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사전검토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시 발주기관 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철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공공건축 설계발주 적용 주안점' 교육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개정된 설계발주방식의 주요 내용과 '설계공모'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적용방법, 설계발주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약 410명의 공공건축 조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2014년부터 새로이 시행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 및 설계발주방식에 대해 일선에서 공공건축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건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